

“뜻 함께 해준 이웃과 나눔·봉사 이어가겠다”

은성호 목포 산정동지사협 위원장

노인의날 기념식서 국민포장 영예

2002년부터 취약계층 생필품 온정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해외 봉사도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봉사할 것”

“지난 24년간 봉사한 것처럼 늘 뜻을 함께해준 많은 이웃과 앞으로도 봉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지역에서 20여년 동안 홀로 사는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을 보듬으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선 은성호 목포시 국민포장 수훈의 영예를 안아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11일 목포시에 따르면 은성호(68) 산정동지 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노인 권익 향상과 경로효친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받았다. <사진>



은 위원장의 헌신적인 이웃사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24년간 해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백미와 성금을 후원하고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밀반찬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2017년 7월부터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 가정에 매월 10kg 백미 5포를 정기 기탁하며 소외계층의 버팀목이 됐다.

산정동지사협 위원장을 맡은 뒤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현장 밀착형 특화사업을 이끌며 마을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홀로 식사를 챙기는 남성 어르신들의 자립을 돕는 ‘남성 혼밥 요리교실’을 비롯해 여름철 생수 지원과 건강박스 전달 등 주민 파부에 외왕은 복지를 실현했다.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전동휠체어를 지원하고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장바구니 카트

를 건네는 등 일상의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나눔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의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복지에만 머물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 의지가 굳건한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꾸준히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 인재 양성의 토대를 다졌다. 아울러 저소득 가정 아동의 혈액암 치료비 후원과 김장김치·난방유 나눔은 물론, 내팔 지진 피해 복구 집짓기와 갑보다아 우물 시추사업에도 힘을 보탰다.

김혜주 산정동장은 “은 위원장의 국민포장 수훈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산정동 모두의 자랑스러운 경사”라고 축하했다.

은성호 산정동지사협 위원장은 “20년 넘게 지역사회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뜻을 함께 해 준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이라며 “영광스러운 국민포장을 받게 돼 감사드리며 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새목포라이온스클럽 회장과 산정동 주민자치위원장·방위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며 전남지사·목포시장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목포=정해선 기자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지역주민 한마음 축제’ 성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우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건태)은 11일 “최근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정서적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주민 한마음 축제’를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지역주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정겨운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일곡88정형외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북구협의회, 남명철 북구사회단체회장, 무등산타, 올댓 뷰

티아카데미, 광주우산3주거행복지원센터, 우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북구새마을회, 북구새마을부녀회, 강창숙김치 등 지역 내 다양한 단체의 따뜻한 후원과 민·관의 협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전복죽 식사 대접을 비롯해 법고시연, 무등산타·방밖곳곳 캄캄바·북구시니어합창단·복지관 다이어트댄스팀 공연과 다양한 홍보·체험·먹거리 부스 등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김병준 일곡88정형외과 원장은 “밝게 웃으시



며 축제를 즐기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고, 앞으로도 우산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태 우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지역 이웃들과 한자리에 모여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공

연을 즐기며 활기찬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뜻깊다”며 “축제에 가까이 마음을 모아주신 후원자분들과 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민이 편하게 찾아와 따뜻한 정을 나누는 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복기 기자



동강대, 헌혈·조혈모세포 등 생명나눔 실천 캠페인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헌혈·조혈모세포 기증 등 다양한 생명나눔 실천 캠페인으로 따뜻한 캠퍼스를 만들고 있다.

동강대 건강증진센터는 최근 학생회관 1층 입구에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함께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앞서 동강대는 지난 4월에도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들을 위해 간호학과, 총학생회가 주축이 돼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조혈모세포 기증과 관련해 5분여의

개별 교육을 실시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채혈과정으로 이뤄진다.

또한 동강대는 2016년부터 11년째 이어온 헌혈 캠페인도 개최했다. 동강대 간호학과 RCY(Red Cross Youth·청소년적십자) 동아리는 지난달 30일 교내 교수연구동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 헌혈 행사를 벌였다.

동강대 헌혈 캠페인은 매년 4차례 진행되며 연말 헌혈증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전남광주 ‘제47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성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8일 ‘제47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열고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평등사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복지국장과 윤재광 영암부군수, 장애인 유관단체장, 시각장애인 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흰지팡이 현장’ 낭독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 복지에 기여한 유공자 3명 표창, 기념사와 격려사, 지화별 문화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흰지팡이의 날’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1880년 10월15일을 기념일로 정한 이후 매년 기념하고 있다.

정광선 국장은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용기를 상징한다”며 “시각장애인이 더 자립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리도록 포용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는 시각장애인플러스지원센터·시각장애인점자도서관·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과 정보접근 지원, 장애인 권익옹호·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고 있다. /최명진 기자



전남과학대 RCY, 외국인 근로자에 치킨 나눔

대한적십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사는 11일 “이날 전남과학대학교 RCY(Red Cross Youth·청소년 적십자) 회원들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촌 촌스리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전남지역 농어촌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주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과학대 RCY 회원들은 광주전남아시아 축구클럽과 함께 외국인 주민과 가족 200여명을 초청해 축구 경기를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교촌치킨을 전달하고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필리핀어 등 다양한 언어로 타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치킨을 나누며 한국에서의 생활 경험을 공유했다.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사 회장은 “먼 타국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 애쓰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며 “작은 치킨 한 마리이지만 여러분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성 기자



무등산국립공원-IBK기업은행 ‘국립공원 나들이’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11일 “IBK기업은행의 후원을 받아 화순전남대 병원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국립공원 탐방 공공성 강화·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IBK기업은행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나들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거 폐광·석탄산업으로 인해 환경보건에 취약한 지역 내 65세 이상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기획됐으며, 어르신에게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일상 속 심신 활력을 되찾고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지난 달 29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됐다.

1회차에서는 나주 폐광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무등산국립공원 대표 탐방지인 주상절리대, 편백나무 숲 체험, 죽녹원 트레킹, 미디어아트관람을 진행했으며 2회차에서는 화순 폐광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여수 오동도 일원에서 생태·해양 요트 체험을 진행해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과 보전의 가치를 오감으로 느끼며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서형우 기자

민정범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 취임



민정범(사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수가 제25대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에 취임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장 안병욱)는 민정범 교수를 제25대 조선대학교치과병원장으로 임명했다.

민 병원장은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학장을 비롯해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치과보존과장과 진료부장 등을 역임하며 대학과 치과병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치과보존 분야에서 연구와 진료에 힘써온 민 병원장은 균열치 치료, 치근우식(치아 뿌리 충치), 라미네이트 및 심미치료, 치아외상,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 치아재식술 등을 주요 진료 분야로 하고 있다.

민정범 병원장은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병원 발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담양군, 자치법규 입안 실무 역량 교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은 11일 “최근 담빛누리센터 다목적실에서 공직자 7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법제처 주관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며 법제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조정필 법제처 법제교육과장이 강사로 나서 기본 구조·입안 원칙부터 총칙·부칙 작성 등 실무 전반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보조금·기금·위원회·위탁 등 행정 현장 다빈도 사안을 중점 다뤄 공직자 이해도·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최미정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는 군민 생활·행정 업무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한 작성 능력이 필수적”이라며 “실무에 유용한 법제교육을 지속 운영해 법규 완성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주경찰청 암행순찰대 교통질서 확립 주력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최근 한글날 맞아 심야에 교통경찰·사이카·기동대·암행순찰대를 동원해 도심 교통질서 확립에 주력했다.

특히 가용경찰력을 주요 도로·폭주취약지에 집중배치해 이륜차 집단운행과 난폭운전·신호위반 등 시민안전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윤시연 암행순찰대 팀장은 “광주시민들이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광주일대를 유동순찰하며 교통위반사항을 강력 집중단속했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우리 결혼합니다”



▲서동교(주식회사 팍죽 대표이사)·박경옥씨 장녀 서영주(주식회사 팍죽 실장장, 신단식·이미리씨 장남 신수호 군·10월17일(토) 낮 12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010-2923-2388(서동교)